

약간 부족하게 먹어라

김 재 욱

옛날 보리고개를 넘던 궁핍시대의 식생활을 겪어온 1세의 기성세대들은 2세대들에게만은 되도록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시키려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분별없이 많이 먹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요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체구가 커지고 조숙한 경향이 있으나 체질은 나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의 과보호 아래 부족함이 없이 자라기 때문에 비육돈(肥肉豚)처럼 되어 제멋대로 자라나는 2세대 중에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병원을 마치 옆집처럼 자주 드나들 뿐 아니라, 부모나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까지 폭행하는 일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결과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자녀들에 대한 1세들의 잘못된 과보호와 식생활의 혼란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유치원에서 부터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녀의 손목을 잡고 따라 다니거나 자가용을 태워서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가 적지않다. 돈 많고 귀한집 자식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한데, 자라나는 어린이는 제 힘만으로도 능히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요사이 어머니가 아기를 기를 때 아기가 배고파 보겠다고 울자마자 서둘러 젖을 물리는데, 그것도 그다지 현명한 일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유아는 배가 고파 울다가 어느 정도 지쳤을 때 비로소 젖을 물리면 정신없이 흡족하게 빨아먹는다.

이와 같이 결핍의 자극을 준 후 충분하게 젖을 주면 아기는 참으로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까지 남김없이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부족이라는 것을 모른채 포화상태에서만 자라게 된다면 자라서도 주의가 산만해지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㉔**

〈필자=서울농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대전엑스포 '93. 성공적으로 끝나다

새로운 도약의 획기적 전기 마련

142년의 근대 엑스포 사상 개발도 상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전엑스포 '93이 역대 엑스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엑스포 중의 하나라는 국제적 평가 속에서 지난 11월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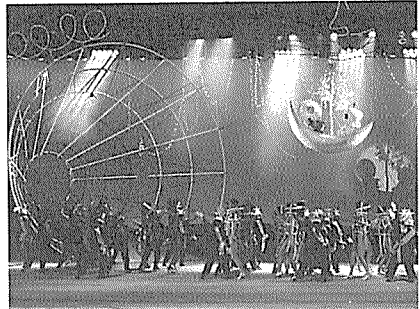
대전엑스포는 지구촌 최대의 과제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해결방안을 구현함으로써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92년의 리우 환경 선언에 이은 대전엑스포 '93의 개최로 무공해 에너지 개발과 자원 재활용 신기술이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과학정신 심어줘

우리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준 것은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엑스포 공원' - 영구적 활용

외국에서는 엑스포 개최 뒤 상징건



물 외에는 모두 철거하지만, 우리는 국내 전시관을 처음부터 영구적 건물로 지어서 앞으로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을 설립, '엑스포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94 상반기에 다시 개장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과학교육의 장으로 영원히 활용하게 된다.

대전엑스포 '93은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개발품을 선보임으로써 과학선진국을 앞당겼으며, 경제발전·문화예술의 국제화·지방화 시대 촉진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전엑스포는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속적인 행사이다. 앞으로 개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전엑스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